

부르심의 길에 서서_04

소풍 다녀 온 아이처럼

어린 시절 일 년에 두 번, 소풍가기 전 날은 설레어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준비하신 김밥은 우리형제들에게 오랜 만의 특식이었습니다.

소풍 전날 행여 비가 오는 기미가 보이면 손 모으고 기도 하던 기억이 납니다. 먼 길을 걸어(지금 차로 달려도 한참을 가는 그 길을 어린 우리들이 걸었으니) 돌아올 때는 지쳐버리기 일쑤였지만 우리는 손을 꼬으며 아직 먼 다음 소풍을 기다렸습니다.

소풍날 저녁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줄줄이 어머니께 얘기해드렸는데 지금 기억하고 계실까요?

2012년 가족사랑의 달을 보내며, 모든 주님의교회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칠 때에 어릴 적 소풍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 생각하면 새 힘 나시라고 작은 마음 전합니다.

‘부르심의 길에 서서’ ... 지나온 제 인생길을 돌아보니 ‘소풍’ 간 날처럼 아련한 감사가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았지만 ‘소풍’의 세월로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6세 되던 해 아버지께서 16명의 성도들과 함께 개척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세월따라 천막교회가 루핑 지붕의 교회로, 루핑지붕이 벽돌과 콘크리트로 변하는 교회속에서 울며 웃으며 교회를 지키며 세워 가신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 속에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과 부활절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몸으로 체험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장래희망은 선생님, 간호사였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말씀으로 위로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간호사가 목회자라는 생각을 한 후바로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여성목사안수가 선배 여성 목회자들의 피땀 흘린 노력 후에 이루어져서 저는 은혜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가운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한 막중한 사명감이 있는 것을 느끼며 지금껏 목회현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5세부터 교육전도사로 시작하여 17년 동안 어린이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함께 산 세월이 ‘소풍’ 처럼 아련한 즐거움으로 추억이 됩니다. 늘 고백하지만 부족한 제게 하나님은 좋은 교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후로 교구목회를 6년 동안 하면서 어른성도들과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목회의 세월도 소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곱교회를 지나며 허락하신 주님의교회에서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사는 세월도 ‘소풍’의 계절입니다. 작년에 겪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소풍 전날 비가오는 안타

까움으로 기도했던 시간들처럼 조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의 기도소리가 치료의 광선이 되어 다가온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_ (귀천 / 천상병)

고생만 하다가 간 시인이 살았던 한 세상이 한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소풍을 간 날처럼 즐겁고 아름다웠다는 고백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소풍다녀온 아이처럼 ‘그랬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기회 주시는 대로 평생 ‘소풍’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소풍시간이 더없이 귀하고 즐거운 시간임을 다시금 고백드립니다.

〈 박혜성 목사 〉

땅끝 편지_05

2012년 함글함글에서는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어에 기초하여 땅끝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어머니를 추억하여 작성한 편지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고

백하고 치유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실어드리겠습니다. _ 편집자

사모곡

어머니!
이따금 누워서
밤공기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소리에도
어머니 사랑 실려 있습니다.
죽음을 알고 나면 고향 뒷산으로 가리라.

이 땅위에 사시는 동안
이사야의 탄식, 예레미야의 눈물
옴의 고난을 읽어 주셨죠

세상 먼지 훌훌 털시고 산모퉁이 지키시는
어머니의 자리조차
자주 뵈지 못합니다.

어머니!
기도의 생명은 줄기가 되어
살아있는 채로
이제야 빈들에서
깨닫습니다.

자식들 미어지게 품으셨던
넓은 가슴은 세찬 회오리바람도
비켜가는 안식처이었음을....

마음에 슬픔, 그리운 고독,
오! 사무치는 기억
철없는 시간 여행 또 떠납니다.

〈 5교구 이인순집사 〉

축하합니다

2012년 주님의교회 전반기 입교, 세례, 유아세례자 명단

1. 입교

〈장 년〉 김광중, 오지은, 이가영, 이성운, 이지영, 임환택, 홍덕화
〈고등부〉 공 평, 권소희, 권인서, 권주영, 신수정, 신예은, 여수정,
이세진, 이주영, 전윤식, 조은진, 최연호, 최준혁
〈청년부〉 김서연, 김지수, 신의근, 최혜원

2. 세례

〈장 년〉 강윤미, 구성원, 김명옥, 김성현, 김완중, 김종권, 김중현,
김지선, 김진경, 김해경, 김희균, 박용선, 박혜원, 박희용,
배영자, 여지영, 이예은, 이윤희, 임재홍, 임정민, 하성진,
황혜정
〈고등부〉 김재현, 서지윤, 한지윤
〈청년부〉 김 결, 남혜림, 박수지, 박현정, 송세미, 임현준, 한별리,
홍성주

3. 유아세례

김라희, 김서연, 김주영, 김지호, 문가연, 석주영, 이우연, 이준혁
조운서, 조하임, 최지원, 하예희, 황예담

제1여전도회 봄나들이

지난 5월2일 주님의 교회 제1여전도회 회원 38명은 서울을 벗어나 양반의 고장 충청도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베지밀 청주공장(정.식품)을 둘러보고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청남대를 견학하는 일정이었다. 아침 8시40분 출발, 서울을 벗어나니 5월의 푸른 나무들이 싱그러움을 자랑하고 있었다. 누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던가, 가을의 단풍도 좋지만 5월의 신록들은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희망으로 부풀게도 한다.

늘 보는 교우들이며 회원이지만 모두들 처음만난 사람들처럼 버스 안은 이야기꽃으로 가득하였다. 이야기가 좀 잠잠해질 즈음 음악부장이 준비한 악보를 보면서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때 ♪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였다. ♪ 먼 산에 진달래 울긋 불긋 피었고 보리밭 종달새 우지우지 노래하면 ♪ ‘망향’ 노래를 이어서 부르거나니 젊은 날의 학창시절이 생각났다. 젊은 날이 었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으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가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여 베지밀 공장을 견학하였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자동화 시스템과 특히 견학생 모두에게 몸소독을 시킨 후 견학하게 한 점, 우리 몸에 맞도록 세분하여 다양한 제품을 출시한 것을 보면서 불량 식품으로 위협 받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성스런 곳도 있다는 위안의 마음과 감사가 생기기도 하였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점심 식사 후 버스는 청남대로 향했다. 대청댐을 자날 때는 댐의 물이 많이 줄어서 수심이 얕아 보였다. 이 여름동안 댐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하는 사이 어느덧 청남대에 도착하였다. 청남대의 뜻은 남쪽의 청와대란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청남대를 관람하며 주위 산책 시간을 가졌다. 돌아올 때는 모두가 피로하여 버스 안은 임시 숙소가 되었다. 그 가운데에도 성자순례의 체험담과 즐거운 웃음 보따리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울로 돌아왔다. 즐겁고 복된 시간이었다. < 황옥자 권사 >

청년부 LETS 4기 수료식



5월 6일 주일 청년부에서는 예배 후 LETS 4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7주간 진행된 청년 리더교육훈련학교(LETS)의 수료자 21명은 성경과 기도, 구원과 예배 그리고 리더쉽 등 청년리더로서 세워지기 위해 함양되어야 할 필수적인 총 7강좌를 모두 성실하게 마쳤습니다. 또한 주중 과제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었는데, 기도는 렉시오 디비나 훈련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말씀은 매주 담임목사님 설교요약을 통하여 설교 말씀에 더 깊이 한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21명의 수료자들에게 이번 수료식은 청년 공동체 내에서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감동과 눈물이 있는 수료식되었습니다. 앞으로 LETS 4기 수료자들은 청년부 공동체 내에서 겨자씨 리더로, 팀장으로, 서포터로서 섬김을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이광제 전도사 >

* 성경 _ 한자로 풀어보기

聖地巡禮(성지순례)

12단계 성경공부의 大尾(대미)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체험하는 성지순례이다. 유종의 미를 기도하며 그 의미를 공부해보자.

辭典的 意味(사전적 의미)

聖地(성지):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어 神聖視(신성시)되는 땅.

巡禮(순례): 종교상의 여러 성지나 靈地(영지)등을 차례로 찾아다니며 參拜(참배)함.

文字的 意味(문자적 의미)

★聖(성인 성): ‘듣는다’는 의미가 있는 耳(귀 이)와 禾(나타날 정)이 합하여 “귀로 남의 말을 잘 듣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나타내 보이는 자가 성인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는데 나중에 “거룩하다”는 의미도 추가되었다.

★地(땅 지): 土(흙 토)와 ‘널리 퍼지다’라는 뜻의 也(어조사 야)를 결합시켜 “흙이 널리 퍼져있으니 땅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巡(돌 순. 순행할 순): 川(내 천)의 변형체인 𡿨(개미허리)에 ‘길. 가다’의 뜻이 있는 𠂔(쉬엄쉬엄 갈 착)의 변형체 𠂔(책받침)을 합쳐 “넷물이 흘러가며 소용돌이치듯 길을 따라 순행 한다”라는 뜻이 되었다.

★禮(예도 례): ‘제기, 제사, 神(신)’을 상징하는 示(보일 시. 제사 시)와 ‘풍성함’을 상징하는 豐(풍년 풍)을 결합시켜 “신전의 겹상에 제물을 풍성히 차리고 제사 지낼 때 엄격히 지켜야 할 예의와 법도가 예도이다”라는 의미의 문자가 되었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교회소식 이모저모

5월의 사랑을 전하며 (가정의 달에)

우리들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사랑(愛)이 있음이 우리들은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할 때.. '사랑'(愛)이라고..말을 한다. 청명한 5월의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이렇게 소중하게 나에게로 다가올 때면 언제나 마음이 기쁘다. 사랑(愛)은 나누어야 하고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야 진정한 사랑 나눔이 된다 한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고 고마운 이웃에게는 감사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들 소유라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다. 감사와 사랑의 5월, 여러 사랑의 나눔행사가 열렸다.



늘푸른대학에서는 어버이날 참석하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삼계탕을 대접하고 어버이날 축하연주회를 열어드리고 5월 15일에는 봉평 허브나라 봄나들이를

다녀올 예정이다.

가락봉동 어린이집 어린이들

은 거여 3단지 노인회 초청으로 거여 3단지 경로당을 방문하여 그동안 배운 춤과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



르신들에게 재롱을 부리고 나서 준비해온 선물을 나누어 드리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1세대와 3세대가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며 효(孝)를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가락 1동 노인정에서도 어버이날 특별히 만든 음식을 봉사자들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귀한 인연을 이어가기를 바랬다.

5월 10일 (목) 송파지역 장애인

들과 독거노인들 초청 일일 아

름다운 봄 소풍을 미사리 조정경기장 내 8번 족구장 잔디밭에서 즐거운 야유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송파선교회가 주관

하고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가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하며”라는 말씀을 통해 장애와 외로움 등 어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랐다 했다. 이날 참가한 650여명의 점심식사는 주님의교회가 후원 하였으며 함께한 모두는 우리들 가슴에 사랑을 담을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 신형섭 기자 >

|오늘의 말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_엡 6:1~3

통 권 제 302호
발행인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2년 5월 13일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_롬 12:15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에서는 솜사탕, 아이스크림, 커피, 아이스티, 샌드위치, 찐빵, 만두, 해물, 야채전, 육개장, 김밥, 순대, 어묵, 떡볶이, 뽑기 등의 다양한 간식과 음료가 판매되었다.



이웃과 함께 나눈 정겨운 잔치마당

2012년 전교인 무지개 잔치

모두 함께 부른 '파란 나라'

"티엔 미 미, 니시아오 더티엔 미 미"

하오시앙 화알 카이 짜이 춘평 리, 카이 짜이 춘평 리~

주님의교회 대예배당에서 느닷없이 '다정한 당신의 웃음은 봄바람 속에 핀 꽃 같아요'라는 뜻의 중국어 노래가 울려 퍼졌다. 무지개잔치에 함께 한, 송파다문화센터 다문화팀의 봄꽃 같은 손님들이 부른 <침밀밀>이었다. 이어서 자녀들이 <파란 나라>를 부르자, 대예배당을 가득 채운 이천여 성도들도 모두 목소리를 높여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맑은 강물이 흐르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새터민 가정, 가락 어린이집, 다문화 가정에서 온 550여명과, 이제는 지역 명물이 된 무지개잔치를 찾아온 지역주민 450여명이, 주님의교회 1,700여 성도와 함께 부른, 화합과 사랑의 합창이었다.

예년과 달리, 전교인이 함께 한 무지개잔치

작년에 이어 하나님의 축복처럼 청명한 날씨가 잠실벌에 가득했다. 5월 5일 10시, 열 번째를 맞는 주님의교회 무지개축제가 정신여고 운동장과 대예배당에서 열렸다. 어린이들 위주로 진행했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 무지개축제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까지는 격년으로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교회의 많은 성도를 감당할 숙소가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무지개잔치를 전교인의 가족 잔치로 기획했습니다." 올해 전교인 무지개잔치의 기획과 진행을 맡았던 윤성진 안수집사의 말이다.

박원호 담임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마친 후,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무지개운동회가 펼쳐졌다. 홀수 교구와 다문화 가정, 새터민으로 이루어진 홍팀과 짝수 교구, 형제교회, 가락어린이집 가족들로 이루어진 백팀간의 대결로 진행된 운동회는, 박 터뜨리기, 3인 4각, 지구를 굴려라, 장애물 릴레이, 피구 결승전, 줄다리기로 진행되었다. 한편 운동장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제기 날리기, 스카이콩콩, 스트라이크, 고리던지기, 줄넘기, 투호, 패널티킥, 미니농구, 미끄럼틀, 바이킹, 등 놀이기구와 축제마당이 이어졌다. 한편, 먹거리 장터

잘있으라 다시만나요, 잘가사라 다시만나요

2시 20분경부터 시작한 본당의 무지개공연은 박원호 담임목사의 <친구여> 열창으로 시작했다. 박목사는 앵콜연주로 <오 솔레미오>를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다. 다문화가정의 노래와 새터민 학생들의 워십, 북한가요 <다시만나시다>가 이어졌고, 팔씨름대회 결승전이 공공승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마술선교회인 제이시매직에서 화려한 마술 쇼를 보여주어 어린이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날 잔치는 행운권 추첨과 박원호 담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올해 행사는 특히 '그린 행사'를 목표로, 현수막도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되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공공승 목사 등 교역자와 성도 20여명이 3월부터 머리를 맞대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큰 잔치를 무사히 마친 데에는 청년들의 헌신이 컸습니다. 50여명의 청년들이 놀이 축제 마당 준비부터 뒷정리, 먹거리 장터 재료 운반 등을 도와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윤성진 안수집사의 말이다. 먹거리 진행을 맡은 강은주 권사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년 늘어난 것을 느낍니다."고 소감을 말했다.

"무엇보다 이 무지개 잔치가 교회 성도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박원호 담임목사의 이날 기도였다. <편집부>

주간 목회력

<12단계 전체단계 수료자모임>

-5.13(주일) 오후 5시 / 대예배실

<해외선교 비전트립 교육>

-5.13(주일)~6.10(주일) / 오후 3시반

<장애인의 날>

-5.20(주일) / 장애 체험

<제9기 싱글매칭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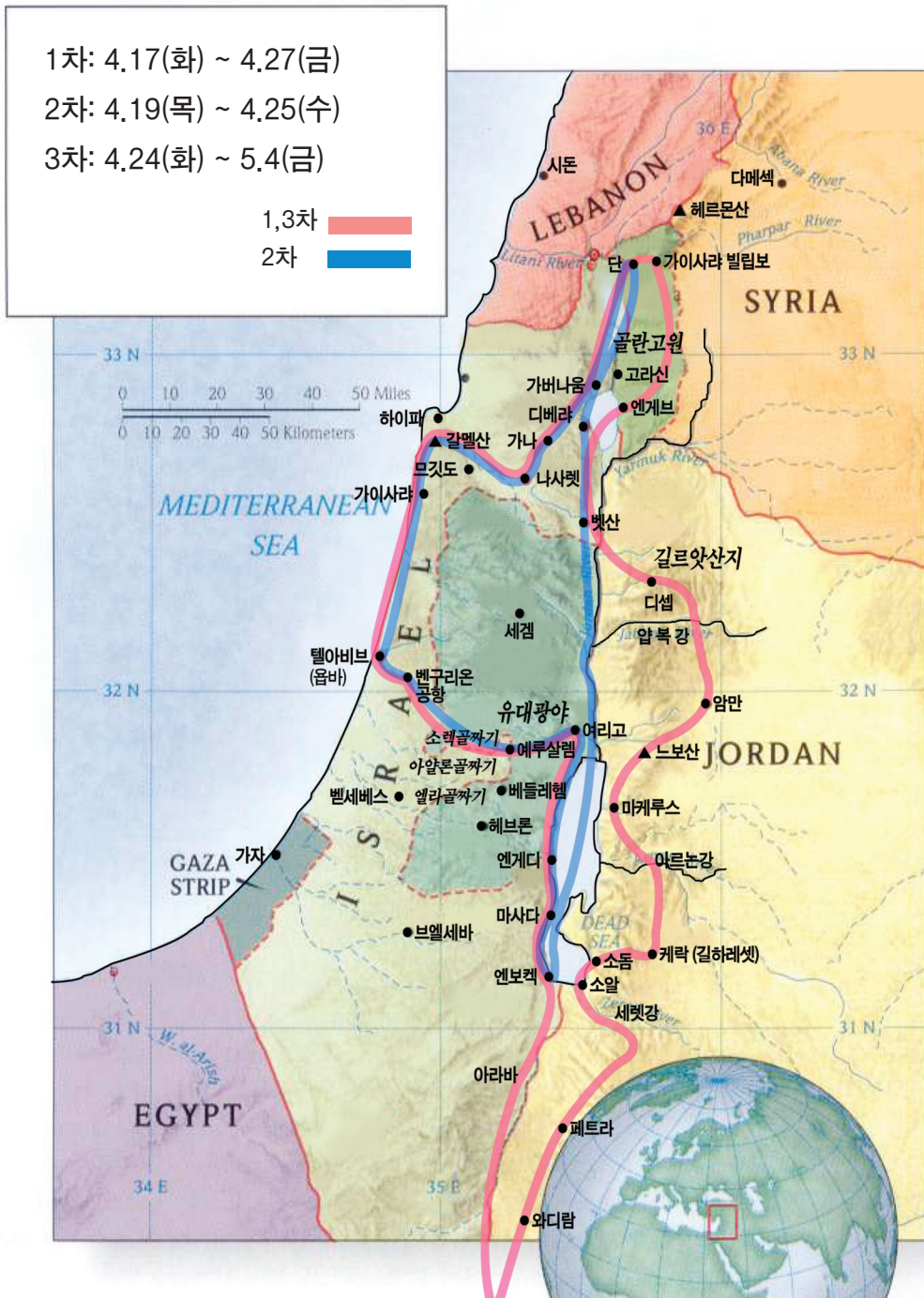
-6.9(토)~30(토) / 매주 오후 1시

<2030부부세미나>

-5.19(토) / 오후 6시 / 밀알실

-참가신청 : 2~4부 예배후 1층 로비

주님의교회 성지순례



성지순례의 길에서 - 보고, 느낀대로 섬기겠습니다

2012년 4월17일부터 5월4일까지 주님의교회 12단계성경공부의 마지막 여정인 성지순례가 3차에 걸쳐 연인원 177명이 참가하여 은혜 중에 마쳤다. 2008년 3월부터 4년에 걸친 12단계성경공부의 마지막 단계로 참가자들은 예루살렘-엔보착-와디람-페트라-암만-갈릴리(1팀기준)를 몸으로 걷고, 보고,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는 성경이야기의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5:16~18)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떠난 순례는 예수님의 40일간 시험을 묵상하는 유대 광야체험,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비아 돌로로사,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을 간접 경험하는 에돔 동편 광야체험, 성지에서의 특별한 주일예배(1팀: 느보산, 2팀: 유대광야, 3팀: 와디람),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요 무대였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진 감동적인 세족식과 성만찬등으로 참가자 모두가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이 순례의여정이 허락되기 까지 박원호 목사님의비전과 결단, 12단계 성경공부 스텝들의 세심하고 꼼꼼한 준비가 있었으며 장신대 성지연구원 현지총무 김태훈 목사님의 헌신적인 수고, 섬기는 이들의 노고와 참가자들의 아낌없는 나눔이 이번 여행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다만 4년간 함께 했던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하지 못한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 노터치하자고 하셨던 시어머니(지금은 세례 받으시고 맨날 못해 못해 외치는 모태신앙의 나에게 도전을 주신다)와 12단계 성경공부를 통해 교회에 발걸음을 시작하셨고 박원호 목사님의 열성팬이긴 하나, 세례 받는 걸 강요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시아버지, 수요성경공부 시간에 업혀 다녔던 큰 아이 현서가 이젠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다. 4년 전에는 가족이 함께 성지순례를 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성지순례 중에 세례를 받고 싶다는 시아버지의 고백에,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올리게 되었다. 구레네 시몬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여 본 비아 돌로로사,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 유대 항쟁사에 길이 남을 맛사다... 너무나 많은 성지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성지순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만남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양병문 선교사님의 가이드로 우리는 다윗이 은신했던 아굴람 굴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차를 타고 갔다. 시험산이 있는 광야와는 다르게 나무와 풀과 꽃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야를 만났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둘러싼 광야가 너무 아름다워 찬송이 절로 나왔다.

그 곳에서 우리는 버스를 가로막는 양떼와 부딪쳤다. 운전기사의 크랙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피할 생각도 못하는 양떼들 때문에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멈춰 있었다. 조금 뒤에 그들의 목자가 나타났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초롱초롱한 눈매를 가진 어린 베투인 목자였다.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 움직이는 양떼를 보며 어린 시절의 다윗을 떠올려 보았다. 또한 나의 삶의 목자이신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드디어, 사울왕을 피해 다윗이 은신했던 아굴람 굴 근처의 광야에 도착하여, 절박한 상황의 다윗을 만나 보았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상황 속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보았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어요, 주님 제 평생 주님을 의지할래요" 하며 기도했다.

갈릴리 호수도 광야 못지않게 기억에 남을 장소였다. 성경

에도 자주 언급되었던 갈릴리에서 요르단을 다녀온 1팀과 극적으로 만나,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 엄숙한 세족식과 성찬식을 가졌다.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 묵상의 시간을 가진 것도 갈릴리였다.

갈릴리가 준 또 하나의 선물은 예상치도 못한 아랍소녀들과의 만남이다.

소풍을 온 15살 아이들은 갈릴리 호수가에서 흥겨운 가락의 아랍노래에 맞춰 강강술래를 하듯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었다. 말이 통하진 않지만 같이 추자고 하는 듯한 소녀들의 몸짓에, 언어가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춤을 추었다. 때론 박자를 맞추지 못해 틀리기도 했지만, 소녀들도, 같이 하는 우리들도,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소녀들도, 우리들도, 미소를 서로 나누었다. 이천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으면 어땠을까?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처럼, 아마 환히 웃으시며 화합의 잔치에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성경 인물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스라엘 성지 곳곳들을 방문하며, 성경말씀을 묵상해보니,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임을 느꼈다. 또한, 이스라엘 성지를 오고 가며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풀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역사하심을 느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마음의 평안함과 참휴식을 준 이스라엘은 불행히도 테러 위험 때문에 삼엄한 분위기의 군인들의 검문과, 높은 콘크리트벽으로 막힌 팔레스타인 등 긴장감이 여전히 맴도는 곳이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가에서 아랍소녀들과 친구가 된 시간을 생각해 보며 소망을 갖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또한 우리의 이웃, 북을 생각하며, 남과 북의 참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유보라 집사>

♣아는 만큼 보인다하여 나름대로 사전준비는 했는데, 얼마만큼 보고 느낄 수 있을지? 그런 염려와 기대는 이스라엘 초대수상의 이름을 따라 명명한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가나안에 무사히 입성했다**

는 안도감과 함께 유대민족의 지도자 "모세"에 대한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250만 유대인을 애굽에서 이끌고나와 광야에서 40년간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그렇게도 열망하던,

그리고도 그곳에 발을 디디지 못한 "모세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이었을게다." 버스 안에 준비된 "거룩한 성" 찬양을 따라 부르며 오르막길을 한동안 달려 이스라엘

국가(Hatikva)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위에 자유의 백성이 되리라는 우리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강한 애정과 열망을 온 유대민족이 노래하는 그곳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다. 조망 아래 드러나는 교우들의 얼굴모습에서 친근감과 일체감이 느껴진다.

현지일정 첫날 감람산 전망대를 거쳐 예수님의 눈물과 땀이 어려 있는 눈물교회, 갓세마네동산, 고뇌의교회(만국교회) 공동묘지를 돌아보고 감람산 봉우리를 동쪽으로 넘는 순간, 광활하게 펼쳐진 유대광야가 우리를 맞는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배경이 된 그 곳이다. 그저 '없다' 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황폐함이 아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최첨단의 문명과 서민의식 문화와 공존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혹 하나님이 이 광야를 여백처럼 가능성으로 남겨 놓으신 건 아닐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장소를 기념하여 세운 시험교회가 보이는 광야전망대에서 각자 거리를 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지게 된 의문 두 가지: 1) 출애굽의 사건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황량한 광야에서 누가 이들을 먹고, 입히고 또,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었을까?

2)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조금의 그늘도 없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하는 사막에서 인간의 몸으로 금식하며 어떻게 40일을 버티셨을까?

이어서 찾은 요단강(예수님의 세례터)에서는 많은 상념들이 머리를 스쳐갔다. 현세와 내세를 가르는 강.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관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 그 강이 10m남짓한 폭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며 짧은 기도; 이미 요

단 서편에 섰으니, 약속의 땅에 거하는 소망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예루살렘성전 서쪽벽인 통곡의 벽에서 벽 사이에 무수히 적혀있던 기도문과 그 곳에서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하던 흰색제복의 애타병사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다

. 1967년 6월 전쟁시 결사항쟁의 결과로 요르단으로부터 회복한 지배권을 견고하게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 겠지... 2012년 4월22일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 바라다 보이는 느보산 위에서 찬양, 말씀, 설교(담임목사님) 헌금순서로 주일예배를 드렸다. 가나안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위대함이 느껴져 고개가 숙여졌다. 순례 5일째 되는 날, 갈릴리호수 북부에 위치하고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텔단", "고라신"을 거쳐 베드로의 물고기를 반찬으로 점심식사 후 담임목사님이 집례하여 세족식과 성찬예식이 있었다. 예수님의 공생애초기 많은 이적과 기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갈릴리호수를 끼고 헌신과 섬김을 몸으로 느끼며 주님의 삶과 피를 대하는 그 자리는 분명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축복의 자리였다.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의식을 마치고, 얼굴을 호수쪽으로 향한 채 눈을 매만지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는 분명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리라.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Via Dolorosa체험, 이른 새벽 십자가를 교대로지며 좁은 골목길을 올라 도착한 승천교회, 그 교회 뜰을 돌며 80여 목소리가 합하여져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위에"를 합창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삶에의 소망을 확신시켜주셨다. 우리의 일정을 챙겨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성지순례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성경에서 관련부분이 눈에 띄면 그 광경, 뜻이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이번 여행 중에 느끼고 체험한 기억들을 오래 간직하며 굳건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 <최성준 안수집사>

♣그림엽서에서나 보던 성경 속의 그 예루살렘 성 전경이 내 눈에 들어오자 마치 타임머신



을 타고 옛날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있는 듯한 잔잔한 감동과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었다.

감람산 전망대에서 예루살렘 성 전경을 구경하고 갯세 마네 기념 교회를 찾았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곳으로 생각되는 바위(기념 교회 안에 있다)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고뇌와 체취를 느껴보려고 한동안 묵상기도를 드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들던 유대 광야에 이르러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을쌔년스럽고 황량했다. 예수님은 이 험한 곳에서 40일간 금식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조용히 묵상기도 중에 온갖 만감이 교차하면서 가슴이 숙연해졌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삭개오를 만나셨다는 여리고 성을 지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일컬어지는 요단강(현재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가르는 국경)에 이르러서는 좀 실망했다.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고 탁한 개천이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라 하니 감회가 새로웠고 기념으로 강물 한 병을 가져왔다. 이어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쿨란을 거쳐 사해에 도착해 그림에서나 보았던 둥둥 뜨는 사해바다 체험을 해보았다. 이튿날 마사다 요새를 구경하고 요르단으로 입국했다. 이 요르단 관광이 의외로 좋았다.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었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촬영지였다던 오디람 계곡에서의 사막걷기와 일몰 광경, 밤하늘에 쏟아져 내릴 듯한 수많은 별들의 향연. 마치 내가 자연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았다. 이어진 사막에서의 베두인식 저녁식사와 야외 예배, 베두인 천막에서의 하룻밤 체험은 다소 고생스럽고 불편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생활한 유대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날 이어진 사막에서의 지프차 투어도 재미있었고 신나는 행사였다고 생각되었다. 얼마 더 가서 그 유명한 페트라에 이르렀다. 각종 매체에서 너무 익히 봐왔던 곳이라 조금도 생소하지 않은 느낌이다.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나게 했다. 온갖 기암절벽과 골짜기 사이사이, 특히 페트라 후미에

있는 ‘알 카지네 신전’은 압권이었다. 자연의 아름다운 한 부분을 인간의 정교한 솜씨로 깎아 만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듯한 그야말로 ‘페트라의 보물’이라 할 만 했다. 신전 바로 옆에 있는 자연 바위산을 깎아 만든 2000석 규모의 야외극장은 세계 유일의 천연 야외 공연장이라고 한다.

주일을 맞이하여 요르단 땅 누보산 정상에서 의 주일예배는 상당히 뜻 깊고 은혜로웠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한 모세는 어떠한 심정이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설사 절차상의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하더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에 원망(?)스러웠을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해졌다. 누보산에서 바라본 모압평야와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 평화스러운 땅 곳곳이 무수한 지뢰가 매설된 지뢰밭이라지 않는가? 인간의 끝없는 다툼과 욕심은 정말 하나님도 못 말리시는 것일까? 헬몬산에서 발원하여 가이사라빌 립보를 거쳐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요단강이다. 이 중간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젖줄이요 보물창고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석유를 주지 않으신 대신 이 갈릴리 호수를 주셨단다. 이 호수에 점심때에 이르러 제2진들과 반가운 해후를 하고 베드로 고기로 점심을 먹고 호수 옆 넓은 공터에서 담임목사님 주관 하에 세족식, 성찬식, 목사님의 축복기도 순서를 가졌다. 손에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호수바로 옆에서 각자 따로 묵상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조용히 호수면을 응시했다. 예수님께서 바로 호수 앞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면서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고 물으시는 듯한 생각에 견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며 지금까지의 나의 지나온 날을 돌이켜 반성했다. 25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 (Via Dolorosa)을 목사님을 필두로 골고다 언덕까지 찬송하며 교대로 십자가를 지고 옛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며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 을 생각하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걸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기념교회 앞에서 처연한 마음으로 묵상기도를 드리면서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며 찬송가를 불렀다. 통곡의 벽에 이르렀다.

약 2000년의 방랑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이 벽 앞에서 이(異)민족에 의한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함락을 슬퍼하고 그 회복을 기원하는데 이는 유대 민족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서 해마다 많은 유대인들과 순례객들이 모여 든다. 이 외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리라는 베드로 통곡 교회를 비롯한 많은 기념교회들을 방문하였는데, 나사렛 기념교회, 베들레헴 탄생 기념교회, 기타 등등의 많은 기념교회들을 방문해서인지 그곳이 그곳 같고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그 의미가 반감되는 듯 했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기념교회 위주의 성지순례보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 탐방 같은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었다. 그리고 호텔과 음식은 비교적 만족스러웠고 같은 교우들끼리의 좋은 친교의 시간이 된 것 같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어울리는 사람들과 매번 똑같이 어울리는 점이 좀 그랬고 교회 출석이 많지 않았던 교우님들은 혹시 소외감을 느끼시지나 않으셨는지 모르겠다. 요르단 관광이 의외로 재미있고 의미가 깊어 앞으로 정적인 성지 관광은 좋지만 동적인 성지 관광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성지순례 코스로 개발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다. 이번 성지 순례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성경에 새롭게 눈뜨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평면적인 이해에서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표현할까? 아무튼 이번 성지 순례가 다들 좋았다고 하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을 비롯한 온 스텝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성지 순례를 가실 분들은 사전에 성경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면 은혜가 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박규택 안수집사>

